

# 人身은 少天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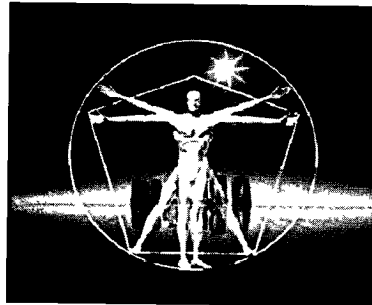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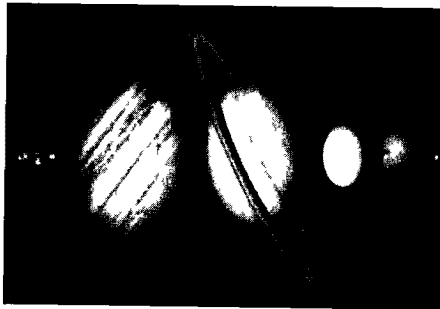
- 天人相應說을 論함 -

金澤洙



## 1. 緒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sup>5)</sup>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萬物)들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돌고 돌아가는 천지음양오행(天地陰陽五行)의 조화(造化)와 섭리(攝理)로 더 불어서 생멸(生滅)한다.



5) 宇宙 (cosmos)와 天地의 概念= 無限의 時空과 삼라만상(萬物)을 포용하고 있는 끝없는 空間의 총체를 의미한다 東洋에서는 四方과 上下를 우(宇)라 하고, 古往今來를 주(宙)라고 하여, 무한의 공간과 시간의 추상적인 것까지를 망라하여 “宇宙”라 한다 ※ “天地”라는 용어도 宇宙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하늘과, 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부르듯이, 총체적으로 망라되는 “宇宙”라는 틀 속에서 “天地”를 연상하게 된다 필자가 이 글에서 “人體는 小宇宙”라고 보편화된 용어를 사양하고 “人身은 少天地”라는 용어를 사용한 뜻도 여기에 있다

■ 人身은 少天地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모두는 천지지간(天地之間)에 운행되고 있는 대자연의 섭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인간들도 비록 만물의 영장(靈長)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예외 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이 우주운행의 법칙에 어울리는 생활을 영위(營衛)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신체의 운행에 고장(病)을 일으키고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들은 우리 인간들과 상호 유비적(類比的) 대응(相應)관계가 성립된다.』하여 예로부터 우리 人間을 소우주(小宇宙) 또는 소천지(小天地)라 호칭하여왔다. 따라서 이 대우주(大宇宙)에서 성립되는 여러 법칙들은 少天地인 우리 人體에도 상응(相應)하여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인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天地가 運行되는 이치를 배움으로서 人體의 理致도 아울러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서 이 우주세계의 오랜 신비를 밝혀보려는 노력은 고대 동양에서의 易學의 발달로부터서, 서양에서의 과학의 발달은 마침내 옛 소련이 인간을 달나라에 착륙시켜 지구촌을 온통 감동시킨 사건은 벌써 케케묵은 일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아직도 화성으로 금성으로 약진을 거듭하며 우주세계의 신비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주만물의 태초적(太初的) 신비의 그 본질을 명쾌하게 규명된 바는 아직 없다. 또 어찌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영원히 밝혀내지 못할 아득하고 오묘한 천기(天機)로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의 밝혀오는 先賢들의 여러 학설을 견주어보며各自가 나름대로 유추(類推)해 볼 뿐이다. 필자도 오직 가상적이고 管見에 불과하겠으나, 젊은 時節에 先考(東泉)의 膝下에서 배워본 바를 어림껏이나마 記憶해내며,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註末尾)선생의 우주요괄첩(宇宙要括帖) 등을 參考해가며 天地理致와 人體와의 關係를 推理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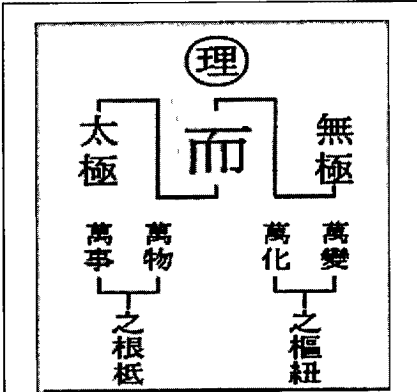
## 2. 太極說과 陰陽五行說의 起源

예로부터 宇宙의 생성과정을 설명할 때, 보통 태역(太易), 태초(太初), 태시(太始), 태소(太素). 이렇게 네 단계의 순서로 定義하고 있는데, 筆者의 나름으로 풀이해보면... ① 太易이란? 우주에서 氣가 아직 발생하기 이전으로서 有理이면서도 無氣의 상태인 태허(太虛)의 세계를 말함이니 즉 무극(無極)인 無에 해당된다고 보며, ② 太初란? 우주 공간에서 氣가 처음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니 즉 무극(無極)과 태극(太極)의 이음(而)에 해당된다고 보며, ③ 太始란? 우주의 공간에서 形의 처음으로서 음·양(陰陽)의 성립을 말함이니 즉 周易에서 양의(兩儀=陰陽)의 意味에 해당되며, ④ 太素는 質의 처음이라는 뜻으로서 오행(五行) 즉 木·火·土·金·水의 物質들이 처음으로 發生한다는 意味로서 이 다섯 가지의 物質은 天地萬物의 本質(原質)이 된다.

태극(太極)이라는 말(語源)은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太極을 萬物의 根源으로서 宇宙의 本體로 보고 『太極은 兩儀(陰·陽, 또는 乾·坤을 말함이다)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고 八卦가 上下로 組合하여 64卦를 만들어 宇宙의 變化無雙함을 상(象)으로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周易에서의 宇宙

- 伏羲先天의 八卦 構成 - (그림1)								
無極	無極之眞 (會眞)							
太極	- 太極 -							
兩儀	- 陽 -				- 陰 -			
四象	太陽		少陰		少陽		太陰	
八卦	乾(天)	兌(澤)	離(火)	震(雷)	巽(風)	坎(水)	艮(山)	坤(地)
	☰	☱	☲	☳	☴	☵	☶	☷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 人身은 少天地이다



<그림2> 無極과 太極의 理致인 “理”를 맨위에 두고 無極은 萬變萬化의 樞紐로 太極은 萬物萬事の 根底로 表示하고 있다 이 그림은 天地萬物의 生成過程인 無極과 太極의 造化를 說明하고 있다

<그림 宇宙要刮帖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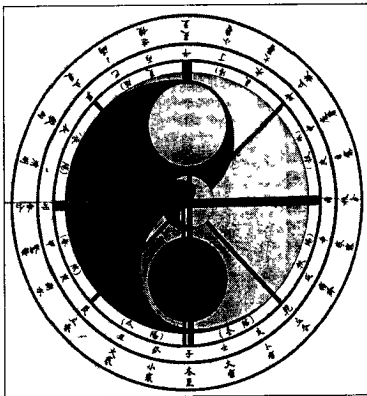
觀에, 새로운 五行說과 우주관을 249字로 서 要約해서 중국 宋나라 염계(濂溪 : 周敦頤 : 1017~1073)가 논(論)한 《태극도설(太極圖說)》에 이어서 朱子(朱熹 : 1130~ 1200)가 자신의 理論을 곁들여 꼼꼼(精緻)한 해석을 거치며 보다 體系化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림1>

이 太極圖說에서 太極의 本體를 『無極而太極이요, 太極而無極이다』는 말로 설명하는 동시에 『無極↔太極=陰陽(兩儀)→五行→萬物化生』이러한 過程의 造化로써 宇宙萬物의 生成이 이루어진다. 라는 理論을 제기하였다. <그림 2>

이러하듯이 太極과 無極은 따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無極을 빼놓고 太極을 논할 수 없고, 반대로 太極을 빼놓고 無極을 논할 수도 없다. 또한 유(有)가 즉 무(無)이며, 無가 有이므로 절대적 無다. 라는 것은 절대적 有와 같다는 意味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太初에 우주공간에는 만물이 생성(生成)되기 이전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空間)라는 太虛인 무(無)라 즉 無極으로부터인데 이 無極은 無極이면서 太極으로 變轉되는 原理를 유지(維持)하고 있으므로 즉 “無極而太極”이 되므로

太極(陰陽)의 變化作用圖



<그림3 설명> 그림에서 보듯이 陽이 넘치면 陽속에서 陰이 생기고 陰이 넘치면 陰속에서 陽이 생긴다 이 작용은 頃刻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나간다

<그림 先考(東泉)의 遺稿에서>

萬物과 萬事의 根柢가 되고, 또 太極은 太極이면서 無極으로 回歸의 原理를 維持하고 있음으로써 “太極而無極”이 되므로 萬變하고 萬化하는 실마리(樞紐)가 된다. 라는 설명이고…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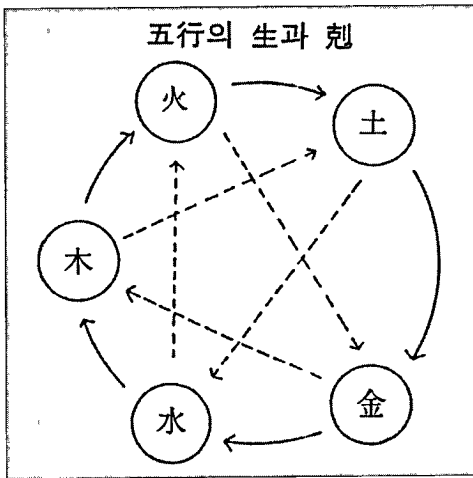
또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太極이 動하여 陽을 낳고 動이 極에 이르면(達=넘치다) 靜해지고 靜하면 陰을 낳는다. 靜함이 極에 이르면(達=넘치다) 動으로 되돌아간다. 한번 動하고 한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陰과 陽으로 갈라져 곧 兩儀가 成立하게 된다. 陽의 변화와 陰의 結合으로 말미암아 木·火·土·金·水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五氣가 順調롭게 퍼져서 四季節이 運行하게 된다. 그러므로 五行은 하나의 陰陽이요, 陰陽은 하나의 太極이다. 다시 말해서 太極은 本來 無極인데, 이 無極之眞과 二·五(陰陽과 五行)의 精氣가 서로 妙合으로 영기(凝)어 하늘의 乾道는 成男(숫컷)하고 땅의 坤道는 成女(암컷)하여 다시 이 二氣(암·숫)가 交感(凝)을 이루게 됨으로써 萬物を 化生시키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萬物이 化生하고, 化生하여 變化되는 理致가 無窮無盡하다.』라는 過程이 太極圖說에서 說明하는 天地사이에 最初로 森羅萬象이 創造되고 化生되었다고 하는 要旨이다. <그림 2.3>

《참고 말1》 太極이란 至極하지 않은 바가 없고, 흠결된 바가 없고, 중단하는 때가 없다 그러므로 太極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太極이란 곧 이른바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나뉘어 둘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셋, 넷, 십, 백, 천, 만의 無窮함에 이르는 것이다 宇宙를 합하여 거슬러 관찰하면 그 처음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하나가 하나인 것이 백, 천, 만, 억의 元祖가 되니 하나라는 것은 곧 스스로 無窮한 變化가 있는 것이다 <張頤光=註 末尾 註를 參考>

■ 人身은 少天地이다

### 3. 陰陽 五行說의 大綱

이렇게 해서 生成되는 木·火·土·金·水의 五行은 各各이 獨特하게 賦與 받은 本性을 固有하면서 서로가 어울리며 相生相剋<아래 참조>의 造化를 부리면서 森羅萬象이 形成된다. 이 五行들이 지니는 各自의 獨特性은 永久不變으로 法則으로서 固有한다. 즉...



① 木은 東方을 맡고, 溫和하고, 바람과 靑色을 主管하여, 신맛(酸)과, 曲直의 性質이 되고, 發生하는 氣가 되어 봄(春)에 運行된다.

② 火는 南方을 맡고, 뜨겁고, 붉은색을 主管하여, 쓴맛(苦)과, 타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되고, 장성(長盛)하는 氣가 되어 여름(夏)에 運行된다.

③ 土는 中央을 맡고, 平溫이며, 노랑색을 主管하여, 濕하고 단맛과 부드럽고 완만하며, 고르게 퍼져 事物의 바탕이 되어주고, 사계절에 붙여 왕성하나 특히 季夏(長夏)에 運行한다.

④ 金은 西쪽을 맡고, 서늘하고, 매운맛(辛)과, 하얀색을 主管하여, 종혁(從革)의 성질이 되고 하늘에 있으면 숙정(肅淨)하고 收成하는 기가 되어 가을(秋)에 運行한다.

⑤ 水는 北을 主管하여, 寒冷하고, 짠(鹹)맛과, 검정색을 主管하며, 潤澤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되고, 굳게 엉기고 폐장(閉藏)하는 氣가 되어 겨울(冬)에 運行한다.

이렇게 하여 各各이 賦與받은 固有의 性質로서 相生하고 相剋하는 造化를 부려서 어떤 事物體를 生成해내기도 하고, 消滅하며, 變化시키기도 하는데 이

原理는 곧 陰陽五行 運行說의 根本이 되는데, 즉 물은 나무를 낳고(水生木), 나무는 불을 낳고(木生火), 불은 흙을 낳고(火生土), 흙은 쇠를 낳으며(土生金), 쇠는 물을 낳는다(金生水)는 相生作用이고 낳는 다는 것은 처음이라는 意味이다. 또 물은 불을 이기((水剋火)하고, 불은 쇠를 이기고(火剋金), 쇠는 나무를 이기고(金剋木), 나무는 흙을 이기며(木剋土), 흙은 물을 이긴다(土剋水)는 相剋作用인데 이긴다는 것은 相對를 消滅시킨다는 意味이다.<그림 참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生하고, 剋하며, 끊임없이 돌고 도는 『陰·陽과 五行』이 運行되는 法則으로 더불어서 萬物이 創造되고, 消滅하는, 온갖 造化와 變化를 부러가며 天地사이에 森羅萬象이 가득히 存在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말2》 五行은 한 陰 陽이요 陰 陽은 한 大極이니, 大極은 본래 無極이었다 五行이 생겨 남에 각기 그 性을 하나씩 간직하니, 無極의 眞理와 二氣 五行의 精氣가 妙하게 合하고 孕기어, 하늘의 道는 男(陽)을 이루고 땅의 道는 女(陰)을 이루어, 두 기운이 交感하여 만물을 化生하니, 만물이 낳고 낳아 변화가 무궁하게 된다 陰은 陽에 뿌리하고, 陽은 陰에 뿌리하며, 二氣(陰 陽)와 五行(木 火 土 金 水)이 합하여 萬物이 생겨난다 <周敦頤>

#### 4. 節序가 運行되는 理致를 論함.

宇宙에 있어서- 하늘(天)은 위에 위치하여, 가볍고 맑은 양기(陽氣)가 모이는 곳이며, 땅(地球)은 아래에 위치하여 무겁고 탁한 음기(陰氣)가 모이는 곳이다. 하늘과 땅은 서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늘은 위와 밖으로 發散하려는 陽氣인 (+)plus의 에너지(氣)를 발생시켜서 地球의 陰氣를 끌어올리고, 또 地球는 아래로 안으로 끌어당겨 응크리는 성질이 있는 陰氣인 (-)minus의 에너지(氣)를 발생시켜서 하늘의 陽氣를 끌어 내리는 작용을 한다. 이와 같이 두 기운(二氣)이 서로 당기고 미는 작용은 마치 磁石의 原理처럼, 순간도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데 이 작용을 天地의 升降운동(升降運動) 또

▪ 人身은 少天地이다

는 氣의 交流 즉 氣交라 한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은 한순간(一刻)도 멈추지 아니하는 氣交의 運行을 통해서 서로 陽氣와 陰氣의 均衡이 유지됨으로써 우주라는 正體性이 유지되며 쉬지 않고 運行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氣交의 작용은 天地의 生命活動이라 말할 수 있다. 같은 理致로서, 우리 人間을 包含하여 天地間에 모든 事物들도 서로가 자기에게 필요한 氣는 받아(收斂)들이고, 필요 없는 氣는 밖으로 發散해내며 이 같은 氣交를 반복하므로써 生命體가 安全하게 維持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氣의 交流는 發生하는 그 時期와 장소(位置)를 주도(主導)하는 陰·陽의 二氣와 五行(木·火·土·金·水)의 分布와 그 作用의 方法과 模樣에 의하여 時時刻刻으로 氣象이 變化하며, 節序가 發生하여 運行하는 것이다. 즉, 봄의 따뜻함은 木氣에 의해, 여름의 더움은 火氣에 의해, 가을의 서늘함은 金氣에 의해, 겨울의 차가움은 水氣에 의해, 그리고 이러한 氣運들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土氣는 換節期에 分布하면서 이렇게 春·夏·秋·冬의 節序가 쉬지 않고 回轉이 反復되며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여 분(分)이 쌓여서 각(刻)이 되고, 刻이 쌓여서 진(辰)이 되고, 辰이 쌓여서 일(日)이 되고, 日이 쌓여 월(月)이 되고, 月이 쌓여 철(季)이 되고, 철이 쌓여 세(歲)가 되는데, 72후(候)와 24절기(氣)에 오행(五行)과 육기(六氣)가 모두 그 순서에 몇몇함이 있다. 5일을 1候라 하고, 3候를 한 절기(節氣)라 하여, 1년 3백 60일이면 모두 72후 24절기가 되어 이렇게 해서 4계절의 循環은 변함이 없이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참고 말 3》 四時는 陰陽의 二氣와 五行이 순조롭게 퍼져서 사계절이 운행된다 四時는 黃道상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1년을 계절로 구분한 春 夏 秋 冬을 말하며, 24절은 태양년을 黃經에 따라 24등분 하여 계절을 세분한 것을 말한다. 봄의 절기에 立春, 雨水, 驚蟄, 春分, 清明, 穀雨, 여름의 절기에 立夏, 小滿, 芒種, 夏至, 小暑, 大暑, 가을의 절기에 立秋, 處暑, 白露, 秋分, 寒露, 霜降, 겨울의 절기에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을 24절기라고 한다 5일을 一候로 하여 1년을 72후로 나누어 기후의 변화와 음양오행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도 한다 <張顯光>



## 5. 人身은 少天地(小宇宙)論.

以上에서의 理論들을 根據로 하여 『우리 人間의 立場에서 宇宙 전체를 놓고 볼 때, 우주를 “대우주(大宇宙)”라 부르고 우리 인간을 “소천지(少天地) 또는 소우주(小宇宙)”라 보아왔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人間과 宇宙와의 相互間에는 유비적(類比的)인 대응관계(對應關係)가 成立되며, 따라서 大宇宙에서 成立되는 法則은 小宇宙인 人間에게도 그것을 반영하여 成立시킬 수 있다. 따라서 人間을 理解하는 데도 大宇宙를 理解함으로써 可能하다. 이와 반대로 人間을 理解함으로써 大宇宙의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라고 예로부터 東·西洋 高금의 哲學者<sup>6)</sup>들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莊子 : BC 369~BC 289?)는 『사람의 生은 氣의 모임(聚)이다. 그러므로 氣가 모이면 生이 되고, 氣가 흩어지면 死가 된다.』<sup>7)</sup> 하였다. 즉, 氣를 天地 宇宙와 一切 萬物의 原質로 보고 이들 一切 萬物이나 人間의 生成과 消滅도 氣의 聚散의 한 過程이라 말하고 있다. 앞서 누누이 거론했듯이 이 말은 우리 人間의 세계에서 天地의 理致와 相應關係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아버지의 道가 되고 땅은 어머니의 道가 되어, 法과 象이 서로 應하며 陰陽의 二氣와 五行이 차례로 運行하며 氣가 서로 交着하고 調和가 胚胎하여 온갖 事物이 생기고 생기는 것이니, 事物은 理와 氣를 받아 形과 器로서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볼 때, 우리 人間은 天地사이의 中間에 位置하며, 人間의 生命體를 構成하고 있는 要素도 앞서 說明한 太極의 原理와 陰陽五行의 틀 안

6) 西洋에서의 小宇宙論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제논(BC 335?~BC 263?)의 스토아학파(Stoicism)에서 이 우주와 인간의 유비관계(類比關係) 思想을 찾아볼 수 있고, 특히 ‘小宇宙’라고 할 때에는 르네상스기의 철학자 P A 파라셀수스(Paracelsus, Philippus Aureolus 1493~1541)의 사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G W F 라이프니츠(Leibniz, Gottfried Wilhelm von 1646~1716)의 단자론(單子論) 또한 일종의 小宇宙의 思想과 맥을 같이 한다 <두산세계백과사전>

7)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 人身은 少天地이다

에서 構成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天地間에 存在하는 陰陽五行의 法則과 類比되는 理致와 構圖를 이어 받고, 여기에 理와 氣의 精華와 四端(註10)의 良知良能함을 同時에 얻어 萬物의 靈長이 되어 三才에 參與하였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五臟과 六腑가 있어, 五臟은 精神, 血氣, 魂魄을 간직하고, 五行의 陰에 屬하며, 六腑는 水穀을 消化하여 津液을 만들어 五臟을 滋養하고 도와서 肉體를 고루 潤澤하게 기르기 위한 것이며 五行의 陽에 屬하여...

- ① 肝臟은 五行의 木에 해당하며, 膽과 連結되어 魂을 간직하고 頭部, 筋肉과, 눈(目)을 擔當하여, 視覺과, 血液의 貯藏과, 供給調節, 解毒 役割과 怒氣의 感情과, 仁性을 主導하며, 四德가운데 元이 된다.
- ② 心臟은 五行의 火에 해당하며, 小腸과 連結되며, 五臟의 하나이나 마음(神)을 간직하여 人間의 모든 知覺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므로 人體의 生命活動의 君主가 되고, 또 胸部와, 脈과, 혀(舌)에 擔當하여, 血液의 循環과, 嗅覺과, 言語를 담당하고, 웃음(笑)과, 禮節의 感情을 主導하며, 四德에서는 亨이 된다.
- ③ 脾臟은 五行의 土에 해당하며, 胃와 連結되어 腹部와 입술에 擔當하여, 體內的 濕度の 調節과, 침의 분비, 味覺과 信義와, 思慮의 感情과 意志를 主導하고, 그 德은 元·亨·利·貞의 眞實함이 된다.
- ④ 肺臟은 五行의 金에 해당하며, 大腸과 皮膚와 코(鼻)에 連結되어, 魄을 간수하고 嗅覺과 聽覺을 感知하며, 心臟과 肺에 酸素의 供給을 擔當하며, 義理의 決斷力과, 悲哀의 感情을 主導하며, 四德에서는 利가 된다.
- ⑤ 腎臟(여기서는 生殖器官과 內分泌器官을 包含)은 五行의 水에 해당하며, 膀胱과 連結되어 精水(호르몬계)의 生産과 供給, 귀(耳)와, 骨格 특히 下肢에 連結하여, 觸覺과, 智慧의 發顯과, 篤심과 두려움(恐)의 感情을 主管하고, 人體 壽命의 根源이 되고 四德에서는 貞(貞)이 된다. 이렇게 各自마다, 固有의 役割과 調和를 얻어 자리한 뒤에 몸을 主宰할 수 있

고, 知覺할 수 있고, 思慮할 수 있고 記憶할 수 있고 靈感으로 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밖으로는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象을 닮은 것이요, 발이 모난 것은 땅의 形을 닮은 것이다. 하늘에 사시(四時)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四肢가 있고, 하늘에 五行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五臟이 있고, 하늘에 六極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六腑가 있고, 하늘에 九星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九竅(구구= 귀, 눈, 코의 여섯 구멍과 입, 요도, 항문의 세 구멍을 통틀어 하는 말)가 있고, 하늘에 十二時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十二經脈이 있고, 하늘에 三百六十五度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三百六十五骨節이 있고, 하늘에 日月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眼目이 있고, 하늘에 晝夜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寤寐(오매=잠들고 깨어남)가 있고, 하늘에 雷電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喜怒가 있고, 하늘에 雨露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涕淚가 있고, 하늘에 陰陽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寒熱이 있고, 땅에 泉水가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血脈이 있고, 땅에 草木과 金石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毛髮과 齒骨이 있으니, 이러한 것은 모두 四大, 五常(아래 五行의 配屬表 參考)이 妙하고 아름답게 調和되어 成立된 것이다. 《동의보감 身形編》

그리하여… 精은 體의 根本이 되고, 氣는 神의 主人이 되고, 形은 神의 집이 된다. 그러므로 神을 너무 많이 쓰면 停息하고, 精을 過히 쓰면 竭하며, 氣

☆ 筆者의 主張 ☆

哲學의 窮極은 科學의 實用과 合致되어야 하고,

科學의 鼎立은 哲學의 原理로 基礎가 되어야 한다.

萬一, 哲學이 科學으로 證明할 수 없고, 科學이 哲學의

原理에 附合하지 못한다면 둘 다 虛構일 뿐이다.

■ 人身은 少天地이다

가 太勞하면 끊어지게 된다. 사람의 生道는 神이요, 形體의 依託은 氣인데 氣가 衰하고 形이 耗損한 뒤에 長生한다는 法은 있을 수 없다. 앞서 太極의 理論에서 言及했듯이 有라는 것은 無로 인하여 생기는 법이요, 形이라는 것은 神을 기다려서 自立하는 法이니, 有는 無의 窟이요, 몸(形)은 神의 居宅이다. 따라서 神의 居宅이 되어 주는 몸(身體)을 제대로 保全하지 않고 修身과 養神을 외면하고 太勞로 形의 消耗만 거듭한다면 結局은 氣가 흩어져서 空虛로 돌아가는 법이니, 살아서는 한 몸이던 것이 죽으면 靈魂과 體魄이 서로 갈라져서 神(靈魂)은 火가 되어 하늘로 飛散하고, 몸(體魄)은 水가 되어 땅으로 沈沒하여 各各 本源으로 돌아가는 것이 自然의 理致이다.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한 뿌리의 나무를 태우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재는 땅으로 歸依하는 법이 自然의 理致인 것과 같다.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心)은 비록 오장의 하나에 해당하나 실은 한 몸의 군주(君主)가 된다. 그러므로 신명이 머물러 있고 지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다. 귀(耳)로는 오성(五聲)을 분별하고, 눈으로 오색(五色)을 분별하고, 입으로 오음(五音)을 내고, 코로 오취(五臭)를 분별하고, 손으로 오륜(五倫)을 다스리고, 발로 오방(五方)을 밟는데, 오직 이른바 신(神)이 방촌(方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사장(四臟)의 영(靈)을 통솔하고, 육부(六腑)의 기관을 관장하며, 오상(五常)의 덕을 갖추고, 칠정(七情)을 활용하며, 耳·目·口·鼻의 기능을 통일시키고 사지(四肢)와 백해(百骸)의 법칙을 준수하여, 마침내 천지의 도에 참여하고, 만물의 이치에 응하여 인극(人極)을 세우고 한 몸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心)이라 한다. <張顯光> <그림 4 참고>

그리하여… 人類의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賦與되었으므로 이것을 命이라 하며, 하늘의 命을 賦與받아 내 마음의 理致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性이라 하

<그림 4> 五行(五常)의 配屬表

	木	火	土	金	水
天干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
地支	寅卯	巳午	辰未戌丑	申酉	亥子
五生數	三·八	二·七	3, 6, 9, 12	七 八	十·十一
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五節	春	夏	四季	秋	冬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性	風	火	濕	燥	寒
五化	生	長	化	收	藏
五體	頭	胸	腹	上肢	下肢
五臟	肝	心	脾	肺	腎
五腑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五官	眼	舌	脣	鼻	耳
五液	泣(눈물)	汗(땀)	涎(침)	涕(콧물)	唾(침)
五味	酸(시다)	苦(쓰다)	甘(달다)	辛(맵다)	鹹(짜다)
五志	怒	笑	思	悲	恐
五情	魂	神	意	魄	精
五感	視覺	嗅覺	味覺	聽覺	觸覺
五聲	呼	言	歌	悲	呻
五臭	臊(누린내)	焦(탄내)	香(향기)	腥(비린내)	腐(썩은내)
五禮(極)	仁	禮	信	義	智
五穀	粗(수수)	麥(보리)	米(쌀)	黃實(기장)	大豆(콩)
五畜	犬(개)	羊(염소)	牛(소)	鷄(닭)	豚(돼지)
五果	李(자두)	杏(은행)	棗(대추)	桃(복숭아)	栗(밤)

■ 人身은 少天地이다

며, 사람에게 性은 固有하기 때문에 常이라하며, 이미 固有한 뜻뜻한 性이어서 마치 굳게 잡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秉彝라 하며, 이 性命의 理致는 正堂堂하여 옮기거나 바꿀 수가 없으므로 衷이라 한다. 비단 사람에게 있어서만 性이라 하는 것이 아니요, 물건도 모두 부여받은 바의 理致가 있으므로 理致가 물건에 있는 것을 모두 性이라 한다. 하늘에 元·亨·利·貞이 있는 것은 모두 至極히 善하고 至極히 바르고 至極히 公正한 理致이므로 이것을 德이라 하며, 사람의 性이 되어서 仁·義·禮·智·信이 된 것도 모두 至極히 善하고 至極히 正直하고 至極히 公正하므로 또한 이것을 德이라 한다. 내 마음에 얻은 이 性의 德이 事物에 應하여 나온 뒤에 그 用을 다하기 때문에 性이 發하는 것을 情이라 이르는바, 順境에 應하는 것은 喜·樂·愛·欲이며, 逆境에 應하는 것은 怒·哀·惡이니, 이 일곱 가지는 情의 條目이다. <張顯光>

## 6. 맺는 말

그리하여... 우리 人間을 萬物의 으뜸으로 보는 것은 오직 萬物들 가운데 唯一하게 精華(精華)를 賦與받음으로써 第一의 靈長이 되었는데, “精華”란 오직 人間들만이 가지는 尊貴한 精神的世界로서, 天地사이에 일어나는 自然의 攝理에 對應할 수 있는 智慧와, 하늘과 땅 사이(天地之間)에 天性(元·亨·利·貞)이 갖추어지듯 사람에게 주어진 사단(四端 註8)의 人性과 道德의 彝倫을 統制할 수 있는 能力을 人間만이 唯一하게 지녀 天地로 더불어서 無限한 祝福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人間은 萬物之靈長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人身을 少天地 또는 小宇宙이다.》라고 定義할 수 있다.

『돌아보건대 우리 人間은 하늘이 덮어주는 아래와 땅이 실어주는 위에

8) 사단(事端)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의 마음씨 즉, 1 仁의 측은지심(惻隱之心), 2 義의 수오지심(羞惡之心), 3 禮의 사양지심(辭讓之心), 4 智의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함

“中”의 理致를 받아서 위와 아래로 하늘과 땅과 더불어 參與하여 三才가 되고 여러 종류 중에 으뜸이 되었으니, 물건 중에 크고 또 귀함이 어떠한가! 이미 물건 중에 크고 또 귀한 것이 되었다면 중(中)을 받고 三才에 參與하는 事業을 測量할 수 있겠는가! 곧 性情(性情)의 道를 다하고 中和(中和)의 德을 至極히 하여 天地를 편안하게 하고 萬物을 길러주며 옛 聖人을 이어 받들고, 오는 後學들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일이다. 다만 만 가지 일을 하고 만 가지 물건이 되는 것이 統體의 太極에 根本하지 않음이 없으나 이미 일(事)이 되고 物件이 되면 또 각기 갖추어진 한 太極이 있지 않을 수 없다. 太極이 일(事)에 있으면 의(義)라 하고, 物件에 있으면 성(性)이라 하니, 물건이 그 性을 잃으면 물건이 올바른 물건이 아니며, 일이 그 義를 잃으면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 儒者들은 반드시 格物·致知를 하여 그 理致를 窮究하고, 誠意·正心을 하여 그 德을 세우고,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하여 그 道를 다한 뒤에야 일과 물건의 理致를 다하여 萬物의 靈長된 사람의 事業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旅軒 張顯光先生의 말씀이다

## 7. (附錄) 靈長之道

모름지기 우리 人間들은 『少天地』로써, 여러 尊貴한 機能과 役割을 하늘과 땅으로(父母)부터서 賦與받아 萬物의 靈長으로 태어나서 그 靈長의 本分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少天地(人間)라 呼稱받을 수 있으랴! 그러할진대, 天地로부터 賦與받은 人間 本來의 良知良能으로 돌아가 四端을 維持하며, 三綱을 銘心하며, 五倫을 實踐에 옮기는 者 만이 人間으로서 비로소 認定받을 수가 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學問하고, 또 學問해서 얻는 바 爲人之道 義를 어김없이 實踐하여야 한다. 그래서 旅軒 張顯光先生<sup>9)</sup>께서는 『무릇 學問

9) 【여현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1637) 명종 9년에 옛 인동현 남산(현 구미시 인의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자는 덕회(德晦)이다 호는 여현(旅軒)이며 퇴계선생의 적전문인(嫡傳門人)이다 일찍이 18세 때에 우주요괄첩(宇宙要括帖)을 지어 대유(大儒)의 면모를 나타

■ 人身은 少天地이다

에 뜻이 있으며 德行에 마음을 두어서 聖賢의 무리가 될 수 있는 者를 君子라 이른다.』하시며, 人間의 道義인 學問과 養性的 意味와 方法으로 提示한 많은 말씀 가운데 몇 마디 간추려 본다…….

《其一 學問의 意味1》 能하지 못하여 먼저 能한 이에게 能함을 求하는 것을 배움(學)이라 하고, 알지 못하여 먼저 아는 이에게 앎을 구하는 것을 묻는다(問)하니, 知와 行을 모름지기 겸하여야 하므로 아울러 학문(學問)이라고 말한다. 배우는 것은 이 道를 배우는 것이므로 도학(道學)이라 하고, 道는 이 본연의 당연한 이치이므로 이학(理學)이라 하고, 道理의 學問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심학(心學)이라 하며, 이 理致를 밝히고 이 道를 몸으로 行함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學問이니, 學問이 이보다 더 바(正直)를 수가 없으므로 정학(正學)이라 한다. 이른바 學問이란 學問을 하여 성인(聖人)에 이르는 것이므로 성학(聖學)이라 이른다.

《其一 學問의 意味2》 사람이 함께 천지 사이에 태어나고, 함께 성명(性命)을 받아서 서면 반드시 함께 서고, 행(行)하면 반드시 함께 행하며, 얻(得)면 혼자만 얻지 않고, 이루면 혼자만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의 도

---

내기 시작하였다 침식을 잊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23세 때인 1576(선조 9년)에 재능과 행실이 드러나 조정에 천거되어 학문적 권위를 인정한 산림(山林)에 뽑혔다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힘써 퇴계의 문인들 사이에 확고한 권위를 인정받았다 유성룡(柳成龍) 등의 천거로 여러 차례 내외의 관직을 받았으나, 1602년(선조 35) 공조좌랑으로 부임하여 정부의 주역(周易) 교정사업에 참여하고 이듬해 잠간 의성현령으로 부임한 것 외에는 모두 사양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산림직으로 신설된 성균관 사업(司業)에 서인인 김장생(金長生) 박지계(朴知謙)와 함께 선발되었다 이후 장령으로 잠간 상경하였을 뿐 이조참판 대사헌 우참찬 등에 모두나아가지 않아서, 영남 남인 중 정경세(鄭經世) 이준(李峻) 등이 중앙에 진출하려 한 것에 대비된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는 의병과 군량의 조달에 나섰으며, 패전 후 동해안의 입암산에서 은거하였다

사상적 특징은 유학의 입장에서 태극(太極)을 내세우되 일체유(一體儒)와 그 근원을 대대(對待)와 조화의 논리로 융화 종합하는 철학적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데 있다 문집으로 《여헌집》이 있고 《성리설(性理說)》, 《역학도설(易學圖說)》, 《용사일기(龍蛇日記)》 등의 저서가 있다 유성룡 정경세 등과 함께 영남의 수많은 남인 학자들을 길러냈다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성주의 천곡서원(川谷書院) 등 여러 사우에 제향 崇仰하고 있다



를 미루어 사람들에게 미침을 교(敎)라 한다. 어리석은 자가 이 가르침을 얻어 밝아지고, 유약한 자가 이 가르침을 얻어 강해지며, 사나운 자가 이 가르침을 얻어 순해지고, 굽은 자가 이 가르침을 얻어 곧아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화(化)라 한다.

《…其二 聖인과 君子1》 중인(衆人)들도 성인(聖人)과 똑같이 天地의 이(理)를 받고 똑같이 天地의 기(氣)를 얻어서 형체(形體)를 소유하고 성(性)을 所有하였으나 혹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혹은 불초(不肖)한 자가 되는 것은, 聖인은 이(理)를 유독 많이 받아 聖인이 되고, 重인은 기(氣)를 유독 많이 받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불초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과 중인이 비록 똑같이 한 理와 한 氣를 얻었으나 天地에 流行하는 氣는 모두 순수(純粹)하고 바를 수가 없어서 잡되고 편벽(偏僻)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순수함과 바름을 얻어서 聖인이 된 자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아래로는 편벽(偏僻)되고 잡된 가운데에 많고 적은 분수(分數)가 비록 똑같지는 않다 해도 重인으로 귀결되지 않는 자가 드물다. 天地가 사람을 낼 적에 어찌 모두 순수하고 바르기를 원치 않겠으며, 또 어찌 그 마음에 후(厚)하고 박(薄)함이 있겠는가마는, 순수함이 적고 잡됨이 많으며 바름이 적고 便僻됨이 많은 까닭은 氣가 流行함에 자연 똑같은 수가 없기 때문이다.

《…其二 聖인과 君子2》 화(化)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체단(體段)이 이미 갖추어진 것을 賢이라 하고, 밝아서 비추지 않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 철인(哲人)이라 하고, 도가 완전하고 덕이 구비된 자를 가리켜 대인(大人)이라 한다. 사람의 성분(性分)과 직분(職分)을 다한 자를 가리켜 지인(至人)이라 하며, 재주와 덕이 출중한 자를 가리켜 위인(偉人)이라 하고 석인(碩人)이라 한다. 나아간 경지의 고하(高下)와 얻은 바의 천심(淺深)을 논하지 않고, 학문에 뜻이 있으며 덕행에 마음을 두어서 성현의 무리가 될 수 있는 자를 君子(君子)

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확립되어서 그만두려 하여도 그만둘 수 없는 뒤에야 비로소 성덕군자(成德君子)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학문에 종사하며 말과 행실을 삼가고 민첩하게 하여 윤리를 밝히고 풍속을 장려하여 세속의 풍습에 따라 변하지 않고 탄 길에 유혹받지 않는 자를 사(士)라 이르며,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꾸며 도를 체행하고 덕을 닦아서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고 옛날과 지금을 통하며 세상에 모범이 되고 풍속에 표본이 되며 옛 성인을 잇고 오는 후학(後學)들을 열어주는 자를 유(儒)라 이르니, 사(士)는 유(儒)를 지향하는 자이며, 유(儒)는 사(士)로서 완성한 자이다”

《…其二 聖인과 君子3》 聖人이란 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크고 화(化)한 것을 성(聖)이라 하고, 또한 만인의 도덕적 실천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만세 인류의 스승이 될 사람을 말하며 맹자는 伯夷, 伊尹, 孔子를 聖人이라 칭하였다. 하늘은 하늘의 일이 있고 땅은 땅의 일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일이 있으니, 만물을 덮어주고 심원(深遠)하여 그치지 않는 것은 하늘의 일이며, 만물을 실어주면서 하늘을 받들어 때로 행하는 것은 땅의 일이며, 삼재(三才)에 참여하여 순수함이 또한 그치지 않는 것은 또한 성인(聖人)의 일이다.

《…其三 儒家의 道德論1》 儒家에서는 부모에게 잘함을 효(孝)라 하고 군상(君上)에게 잘함을 충(忠)이라 하며, 형에게 잘함을 제(悌)라 하고 아우에게 잘함을 우(友)라 하며, 붕우(朋友)에게 잘함을 신(信)이라 하고 부인에게 잘함을 화(和)라 한다. 사람이 족류(族類)에게 있어 은혜와 의(義)의 관계가 다섯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모두 천리(天理)에 그만둘 수 없는 떳떳한 법이므로 부자(父子) · 군신(君臣) · 형제(兄弟) · 부부(夫婦) · 붕우(朋友)를 가리켜 오륜(五倫)이라 하는바, 윤(倫)이란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돈독히 하지

않으면 안됨을 이른다.

충(忠)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신(信)은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므로 아울러 칭하기를 충신(忠信)이라 하며, 효(孝)를 옹기면 충(忠)이 되고 충은 반드시 효에 근본하므로 충효(忠孝)라 하며, 충을 자기몸에 둔 뒤에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미침으로 충서(忠恕)라 한다. 분한(分限)을 잘 지켜서 어기고 넘지 않는 것을 절(節)이라 하니, 오직 의(義)를 세우는 자는 절을 잘 지키고 절을 지키는 자는 의를 다할 수 있으므로 절의(節義)라 한다. 신(信)이 있으면 반드시 의(義)로우므로 신의(信義)라 하니, 믿을 만한 의를 이르며, 의(義)는 도(道)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도의(道義)라 하니, 도가 있는 의를 이르며, 덕은 의로써 행하기 때문에 덕의(德義)라 하니, 돈후(敦厚)한 의를 이른다. 의리(義理)는 일에 반드시 옳은 것으로 말한 것이며, 도리(道理)는 몸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으로 말한 것이다.

(대원당한약방)



《參考 이 글에서 인용한 旅軒 張顯光先生의 관련자료는,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북본부장을 歷任한바 있으며, 慶山大學校 大學院에서 碩士課程을 履修하고, 現在 博士課程을 밟고 있는 慶北 安東市에 碩士 李東秀(雅號= 簡易齋)氏의 學位論文인 旅軒 張顯光先生의“宇宙要刮帖에 관한 研究”라는 論文에서 拔萃한 資料들이다 李東秀氏는 退溪先生의 15代孫으로 특히 多樣한 經歷과 東洋哲學에 造詣하며, 韓國電力 安東所長과 慶北 道議會議員을 거쳐서, 現在 (주)韓進電設 社長과, 周易의 학술연구단체인 안동지지회장 등에 在任 中이다》